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6,000억원 규모 LNG운반선·VLCC 등 4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유럽과 아시아, 버뮤다 선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함. VLCC 2척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하며, LNG선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척씩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디지털타임스)

두산중공업, 1천억 규모 호주 ESS 수주

두산중공업은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신재생에너지 민자발전사인 뷔나에너지로부터 호주 퀸즐랜드주 최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수주했다고 밝힘.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의 ESS 수주 가운데 최대 규모로 총 사업비는 1,000억원이라고 보도됨. 호주 ESS시장(누적 설치 용량)은 2020년 1.9GWh 규모에서 2025년 18.7GWh, 2030년 40GWh로 10년간 2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트기 동체구조물 1억3천만 달러 규모 수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5일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로부터 G280 동체 물량을 새로 수주했다고 밝힘. 수주액은 1억 3,120만달러로 2030년까지 동체를 납품한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Shell signs up shipowner trio to four more LNG newbuildings

슈퍼 메이저 Shell사에 대한 용선 목적으로 팬오션, Knutsen OAS Shipping, JP Morgan 등 3개의 선주들이 4척의 LNG선을 확정발주하고 추가로 4척의 옵션분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팬오션은 현대중공업과 17.4만CBM급 LNG선 2척에 대해 확정발주하고 추가로 1척이상의 옵션분도 계약을 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NG 운임 가파르게 상승

LNG선이 시장에서 꼬리를 감추면서 용선주들이 LNG선을 급히 구하고 있다고 보도됨. 신형 Gas-injection LNG선의 스팟 운임은 대서양 수역의 경우 일일 15만달러, 태평양수역은 일일 13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Affinity Shipping에 따르면 2~3일 내 용선이 가능한 선박은 2~3척밖에 없을 정도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진중공업 인수전, 3파전으로

한진중공업 인수전이 SM상선, KDBI, 한국토지신탁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고 보도됨. 한진중공업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동부건설 컨소시엄, SM상선 컨소시엄, 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등 총 3곳이라고 밝힘. (선박뉴스)